

제 12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

- 일시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9시~13시
- 구간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앞 - 안산 자락길(메타세쿼이아 숲길, 숲속무대, 능안정) - 서대문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주최 : 성균관대학교 / 유학대학 · 유학대학원 / 養賢齋

한양도성과 순성놀이

한양도성은 1392년에 건국하여 1910년까지 지속된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도읍을 둘러싼 성곽과 문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성곽과 그 안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는데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승례문·숙정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입니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습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습니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랜 기간(1396~1910, 514년) 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순성놀이는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상경한 선비들이 도성을 돌며 급제를 빌었던 풍습에서 출발했습니다. 한양도성은 600여 년 간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성민들은 도성을 돌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도성 안팎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서울의 세시풍습을 기록한 『경도잡지』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고 그의 아들인 유본예(1777~1842)도 『한경지략』에서 “봄 여름이면 한양 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안팎의 경치를 구경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양도성과 안산(鞍山)

한양도성은 북악산과 낙산·남산·인왕산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이 4곳의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한양도성 바깥을 다시 북한산과 용마산, 덕양산 등이 지켜서고 있으며, 그 사이사이로 야트막한 산줄기들이 들고나는 땅이 한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밟는 안산(鞍山)은 295.9 미터 남짓한 낮은 산으로, 서대문 바깥을 나서 마주치는 첫 번째 산입니다. 말안장 같이 생겼다 해 길마재라고도 하며, 모래재나 봉우재라고도 불렸습니다. 특히 널리 알려진 다른 이름은 무악(毋岳)입니다. 북악산의 인수봉이 어린애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양이어서, 이를 달래는 어미산으로 안산을 정하고 모악(毋岳)이라 부르던 게 변하여 무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태조 때 하륜은 바로 이 무악을 등지고 있는 신촌 일대를 새 도읍으로 추천했지만 터가 좁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뒤로 안산을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산에 세워진 봉수대에서는 조선시대 동안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전국에서 한양도성을 향해 올라오는 횃불과 연기가 거쳐 갔습니다. 1897년 안산 앞에 세워진 독립문은 조선이 어느 나라의 속국도 아닌 자주 독립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서 보낸 36년 동안, 안산 밑에 세워진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독립을 위해 싸우다 잡혀온 사람들, 억울하게 죄를 쓴 사람들이 옥에 갇혀 신음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안산은 다정다감한 산세와 오붓한 산길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명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수난 많았던 역사를 알려주는 기념관이 되었으며, 독립문은 자주독립의 나라임을 선포하던 그 시절 그대로 남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1회 순성놀이(2015. 5. 10)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2회 순성놀이(2015. 10. 3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3회 순성놀이(2016. 4. 19)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4회 순성놀이(2016. 11. 5)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5회 순성놀이(2017. 5. 1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6회 순성놀이(2017. 11. 1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7회 순성놀이(2018. 5. 12)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8회 순성놀이(2018. 11. 3)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9회 순성놀이(2019. 5. 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10회 순성놀이(2019. 11. 2)

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수원행궁 - 서장대 - 팔달문

제11회 순성놀이(2020. 6. 22)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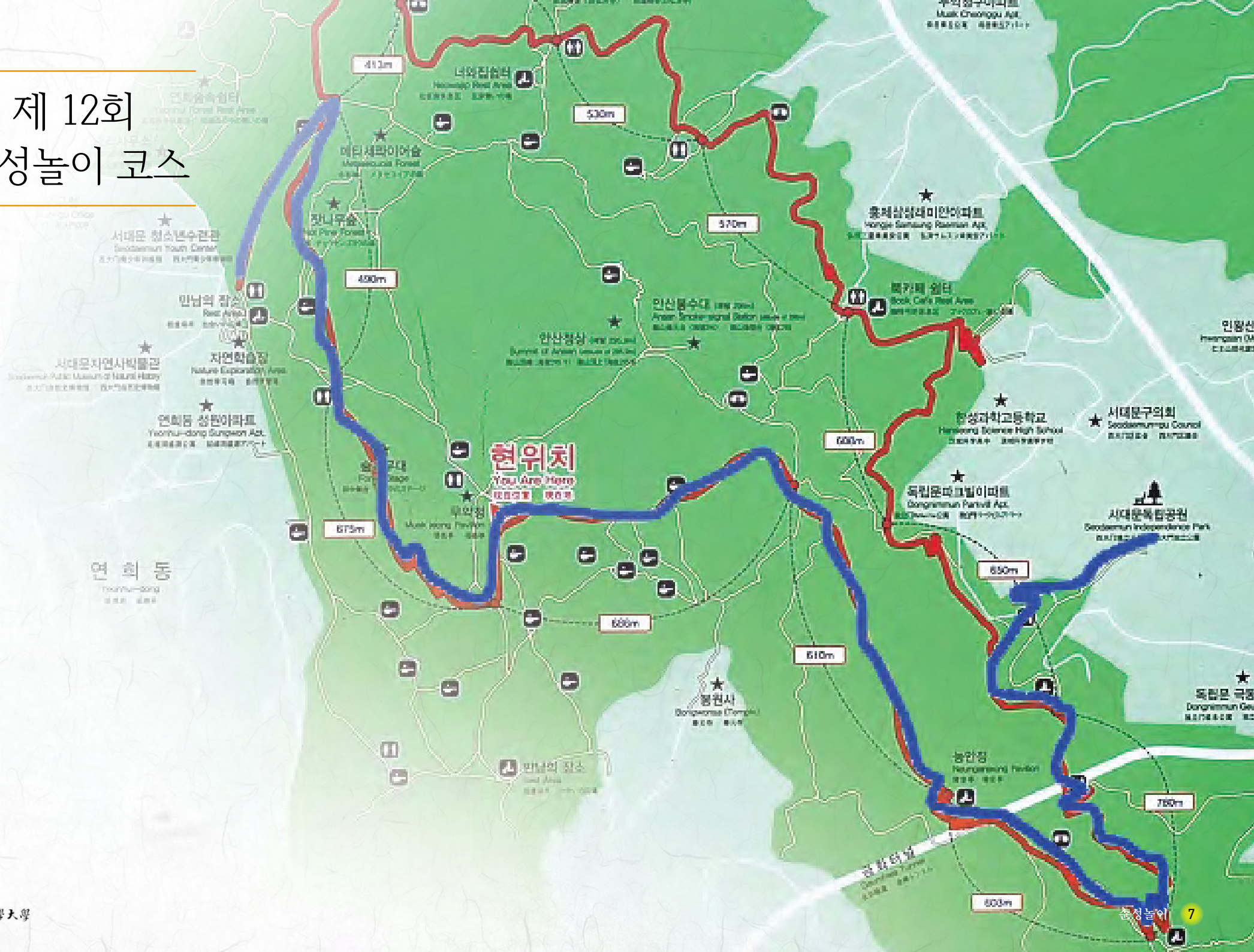
제12회 순성놀이(2020. 11. 7)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앞 - 안산 자락길(메타세쿼이아 숲길 - 숲속무대 - 안산정 - 능안정) - 서대문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제12회 순성놀이 일정(2020. 11.7)

09:00~09:30	집합 및 출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앞, 기념사진 촬영
09:30~12:00	순성 안산 자락길 탐방(메타세쿼이아 숲길-숲속무대- 안산정-능안정), 서대문독립공원
12:00~13:00	오찬 일품식사(음주 및 회식 불가)
13:00	해산 오찬 후 현장에서

제 12회 순성놀이 코스



0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나 개인이 아닌,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직접 계획하고 만든 자연사박물관입니다(2003년 개관). 자연사박물관은 지역 환경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증거와 기록을 보존·연구하며 대중에게 전시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이 자연환경 속 수많은 생명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나아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돕는 곳입니다.

02 메타세쿼이아 숲길

계절에도 변함없이 푸르고 반듯하게 자라는 메타세쿼이아는 중국 중부지방의 깊은 골짜기가 원산지인 나무로 한국에서는 '수송'이라고 부릅니다. 안산 자락을 따라 울창하게 우거진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따라 걷노라면 나무줄기와 잎사귀와 가지 사이사이로 쏟아지는 푸르고 시원한 햇빛과 바람이 지친 몸과 마음을 모두 씻어주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03 안산봉수대

조선시대에는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이어 보내 한양도성에까지 닿게 하였습니다. 이를 봉화(烽火)라고 부르며 봉화를 올려 신호를 이어 보내는 곳은 봉수대(烽燧臺)라고 부릅니다. 안산에는 태조 때부터 봉수대가 세워져 매일 저녁 봉황불을 올렸다고 합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하나, 외적이 나타나면 두 개, 국경에 가까이 오면 세 개, 국경을 침범하면 네 개, 싸움이 붙으면 다섯 개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절이면 늘 봉황불 하나가 안산 정상에서 타올랐다고 합니다.



04 봉원사(奉元寺)

안산 밀자락에 자리 잡은 절 봉원사는 태고종의 본산입니다. 889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뒤 고려 공민왕 때 중건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태조의 초상을 모신 사찰이 되어 왕실의 극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1748년에는 영조가 직접 절을 옮겨 지을 땅을 하사했으며, 이듬해에는 영조로부터 봉원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1884년에는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등이 봉원사를 근거지로 개화파의 젊은이들을 규합해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05 능안정(陵安亭)



능안정이란 이름은 안산 아래 북아현동을 능안리라 부른 데서 나왔습니다. 능안리라는 지명은 안산 자락에 의령원(懿寧園)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의령원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 태어난 세손이었으나 3세에 죽은 의소(懿昭)의 묘원입니다. 지금의 북아현동 중앙여자고등학교 자리이며, 의소묘(懿昭墓)로 불리다가 고종 때 의령원으로 승격되었고 1949년 서삼릉(西三陵)으로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06 인왕산(仁王山)

안산 건너편에 솟아 있는 인왕산은 한양도성의 서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상으로는 한양도성의 우백호(右白虎) 역할을 하는 산이지요. 인왕산은 화강암으로 이뤄진 하얀 암벽들이 그대로 드러난 단단한 산으로, 곳곳에 약수터가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한양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유원지가 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정선은 인왕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인왕제색도>라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1968년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목표로 침투한 1.21 사태 이후 인왕산은 군사상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인왕산은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7 서울성곽길 인왕산 구간

한양도성의 서쪽 성벽은 숭례문에서 출발해 서대문을 거쳐 인왕산을 타고 올라 창의문까지 이어집니다. 태조 때의 성곽은 1척 정도의 다듬어지지 않은 네모 모양의 작은 돌들을 불규칙하게 쌓았으며 벽면은 수직인 상태로만 들어졌습니다. 세종 때 축조된 부분은 아래 부분은 비교적 큰 돌로 그리고 위 부분은 작은 돌로 쌓았는데, 이 때 쌓은 성은 성벽의 중앙이 밖으로 약간 튀어나와있습니다. 숙종 때의 성곽은 정방형 모양의 돌들을 정연하게 쌓아 간격도 일정하고 벽면도 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돌들을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하는데, 성벽 축조 당시 천자문 글자에서 따온 공사 구역 표시, 공사 담당 군현, 공사 일지와 공사 책임자의 직책과 이름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왕산 구간은 장충동 구간과 더불어 한양도성 성곽에서 훼손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08 돈의문 터

돈의문(敦義門)은 근대 이후 흔히 서대문(西大門)이라 불렀던 한양의 4대문 중의 하나였습니다. 태조 연간에 처음 세워졌으나 태종 13년(1413)에 축조된 서전문(西箭門)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습니다. 세종 4년(1422)에 도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서전문을 폐하고 새로운 돈의문을 세웠는데, 현재의 돈의문 터입니다. 이후 돈의문은 “새로운 문”이라는 뜻으로 신문(新門)이라고도 불렸으며, 현재의 신문로(새문안로)라는 명칭도 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15년 일제는 서대문을 지나는 전차 노선을 개통하면서 돈의문을 해체하여 건축 자재로 매각했습니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앞 돈의문 터에는 공공 미술품 “보이지 않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9 경교장과 흥난파 가옥



서대문 주변에는 해방 이후 역사의 현장인 경교장과 '고향의 봄'을 지은 작곡가 흥난파의 가옥이 있습니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이 민족통일

과 완전독립을 위해 고뇌하며 만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합니다. 본래는 금광 재벌 최창학의 별장 죽점장(竹添莊)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최창학이 이곳을 김구에게 집무실과 숙소로 제공했는데, 김구는 죽점장이라는 일본식 이름 대신 근처에 있는 다리인 경교(京橋)의 이름을 따 경교장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김구는 1949년 6월 26일 경교장 집무실에서 안두희(安斗熙)의 저격을 받아 서거하였습니다. 이후 중화민국 대사관저, 월남대사관, 병원시설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3월 김구 거주 당시의 임시정부 활동공간으로 복원되어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흥난파 가옥은 1930년 독일 선교사가 지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붉은 벽돌 건물로, 흥난파는 이곳에서 죽기까지 6년 동안 살면서 《봉선화》·《고향의 봄》 등 그의 대표곡들을 작곡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서양식 주택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0 경복궁(景福宮)

안산 전망대에서는 한양도성 안이 훤히 보입니다. 눈 아래 보이는 경복궁은 조선의 으뜸가는 궁궐로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화려하고 웅장하게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궁궐 바로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세워졌으며, 근정전과 경회루 등 극히 일부 건물만 남고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하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사라졌던 건물들을 발굴하여 복원하고 있습니다.



11 종로(鐘路)

종로라는 이름은 도성 가운데 세워진 종루(鐘樓)인 보신각(普信閣)에서 유래합니다. 종루에서는 밤 10시에 종을 쳐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人定)' 과 새벽 4시에 종을 쳐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파루(罷漏)'를 알려 도성의 8대문을 여닫게 했습니다. 한양도성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종로는 조선시대 이래로 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종로는 서울의 가장 중요한 상업 지역이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는 광장이기도 합니다.



1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는 구한말인 1908년 조선통감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이곳에서는 수많은 민족지도자와 독립 운동가들이 수감되었으며 1980년대까지는 정치인·기업인·군장성·재야인사·운동권 학생 등과 살인·강도 등 흉악범 및 대형 경제사범·간첩·잡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되면서 남은 건물은 1988년 사적 324호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되어 일제강점기와 민주화운동을 포함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 독립문



독립문(獨立門)은 1896년 독립협회가 한국의 영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하여 청(淸)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전 국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하여 세웠습니다. 독립문의 건립은 서재필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10여 년간 망명생활을 한 뒤 1895년 12월 귀국하여 곧바로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협회의 이름으로 독립문 건립을 발의하여 애국지사와 국민의 광범위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서재필 본인이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을 본떠 직접 스케치한 도면을 바탕으로 독일공사관의 스위스인 기사가 설계하였고 실제 시공은 건축기사 심의석이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1897년에 준공된 독립문은 1979년 성산대로를 개설하면서 원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7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여 복원되었고, 기존의 위치에는 독립문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내문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9시부터 집합하는 동안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발열 시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순성놀이 일정 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말을 잠시 내려놓은 침묵 속에서 가을 풍경을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해주세요. 야트막한 경사를 따라 우거진 숲이 연이어지는 아름다운 안산 자락길을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성놀이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교 유학대학원, 양현재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만큼 행사 진행 중에 개별행동은 삼가주시고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상연락처 |

양현재 재감_정빈나 010-7453-0420

TA_김월희 010-7279-5513, 신누리 010-7773-6596, 장몽 010-7521-5855

| 행사총괄 |

유학대학 학장 및 양현재 전재_신정근

| 기획 및 편집총괄 |

양현재 재감_정빈나

| 홍보 |

유학대학 행정실_한진오, 신현호

양현재 TA_김월희, 신누리, 장몽

| 자료제작 |

양현재 TA_신누리, 장몽

| 표지 붓글씨 |

김진희

성균관대학교 / 유학대학 / 養賢齋

